

# 在日 디아스포라, 송영옥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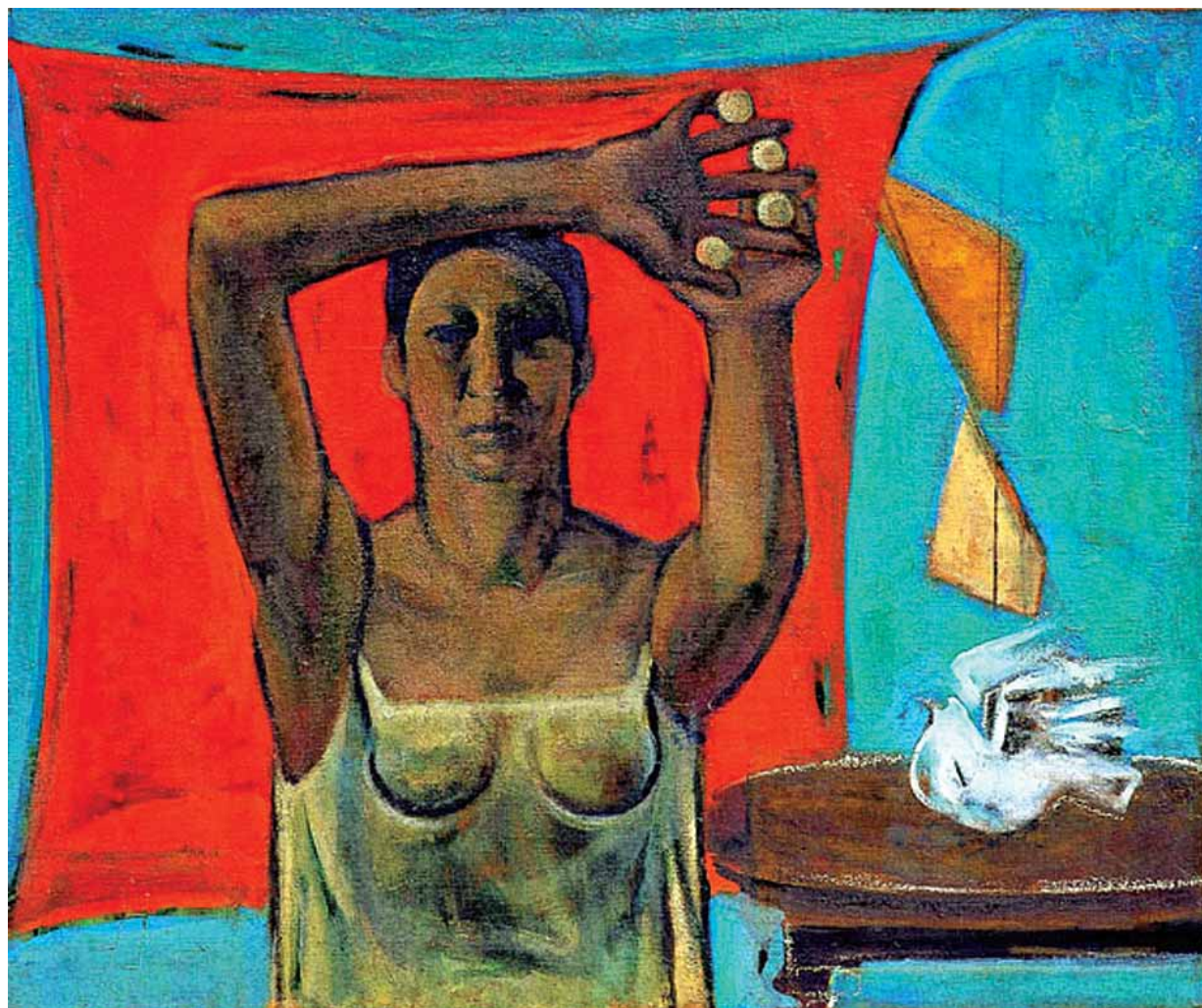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  
탄생 100주년 기획전 '나는 어디에'

분단시대 남·북·일 경계인의 삶  
다리거리쯤 빼 놓을수 없는 작가  
시대정신 충실 치열한 작품 활동

9월 17일까지 작품 51점 전시  
8월 17일 세미나 삶과 예술 조명



송영옥 화백 ▶ '여자 미술사'



"나는 한 캔버스에다 출품하고 나면 다시 그 위에다가 3~4번 다시 그렸다. 보관할 곳도 없고, 또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제작하여 출품한 작품을 지우고 다른 그림을 그린다. 완성작을 스스로 지운다는 행위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그림을 지울 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림 지우기는 일종의 나의 화도(畫道)처럼 되었다. 그림을 지우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 같다."

10일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벽면에 적힌 작가의 유성은 묵직하다. 어쩌면 내가 지금 전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림 아래 또 다른 여러장의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제일(在日) 1세대 작가 송영옥(宋英玉: 1917~1999). 그는 우리에게 낯선 작가다.

지난 3월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이하 하정웅미술관)이 '송영옥 탄생 100주년-나는 어디에'를 오는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탄생 100년을 맞은 송영옥이 우리에게 다가온 건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콜렉션이 있어 가능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 2500여점을 기증한 하씨는 1982년 송영옥과 첫 만남 후 자신이 수집한 송화백의 그림 48점을 기증했고 이번 전시에서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소장품 등 모두 51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초의 회고전으로 광주전 후에는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 그 어디에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송화백은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재일 한인들의 삶과 고뇌를 캔버스에 담았다. 차별, 소외, 가난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는 작가는 상처받은 자들의 외침과 불평을 화폭에 옮겼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도 서슴치 않았다. 그의 작품은 한 개인을 넘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까지도 오롯이 담아낸 셈이다.



'5·17-80광주'

1917년, 12살 소년은 돈 벌러 오사카로 떠난 아버지와 형을 찾아 달랑 '주소' 한 장 들고 일본으로 떠난다. 유리 공장에서 일하며 그림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은 그는 오사카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자유미술협회전에 출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일본 리얼리즘 미술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됐다.

5개의 전시실은 '돌아갈 수 없는 조국', '절규하는 자화상', '절름발이 개의 비유' 등 주제별로 구성돼 있다.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무겁고 어둡다. 처절하고, 아프지만 외

면해서는 안되는 역사고, 이야기이기도 하다. 1960~70년대 작품을 모은 '벽 앞에 서다, 재일 디아스포라의 비애' 섹션에서는 북송선을 타고 떠나는 사람들, 재일 한인들의 빈곤한 생활상 등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에 휩쓸린 재일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절규하는 자화상', '십자가' 등 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방치된 채 상처 입은 재일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 '전쟁과 폭력에 대한 고발, 평화의 염원' 섹션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인간 소외 문제를 넘어 김대중남치사건, 베트남 문제, 히로시마 원폭 피해, 광주민중항쟁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작품을 전시했다.

1980~90년대 즐겨 그렸던 '개'와 '동물' 시리즈는 역동성, 생명력과 함께 광기와 슬픔까지도 아우러져 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영면(저)'는 슬픈듯, 행복한 듯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며 여타 전시작들과 조금 다른 느낌의 '여자 미술사'도 인상적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 '비둘기'는 작은 희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밖에 조카와 주고 받은 육필 편지와 미술학교 재학 시절 스케치 작품 등 송화백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돼 있다.

개막 행사는 11일 오후 5시 열리며 김광철 작가의 퍼포먼스 아트 작품도 선보인다. 오는 8월 17일에는 송영옥의 생애와 예술적 성과, 재일 1세대 작가와 미술경향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도 연다.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경기대 교수), 지바 시게오(전 일본추부대학 교수·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꽃 속에 피는 얼굴'...신 선 개인전



▶ '꽃 속에 피는 얼굴'

14일까지 전남도청 갤러리

완도가 고향인 서양화가 신 선씨는 고향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꽃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주로 그려왔다.

지난해 완도에서 초청 개인전을 열었던 신씨는 올 5월에는 일본 도쿄 갤러리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고향의 꽃-마음의 정원'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신씨가 일본 전시작을 선보이는 개인전 '꽃 속에 피는 얼굴'전을 오는 14일까지 전남도청 1층 갤러리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태산목화를 소재로 한 100여 대작 등 모두 35점을 선보인다. 전라도 사람들의 삶의 정서를 미감을 살려 표현한 것들로 모란, 들꽃 등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들이다.

호남대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신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사생회, 전우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또 나해석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1-287-00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공개

'어반자카파' 등  
아티스트들  
사직공원 무대



'어반자카파'

9월 2·3일 열려

넬, 어반자카파, 브로콜리너마저, Polaris 등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광주 사직공원 무대에 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 2~3일, 광주사직공원에서 열리는 '2017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을 공개했다.

9월 2일에는 넬, 바버렛츠, 안예은, 브로콜리너마저, 일본 밴드 Polaris가 출연하며 3일에는 스위트피, 옥상달빛, 어반자카파, '신현희와김루트', 대만의 'Sunset Rollercoaster'가 나란히 선다.

또한 광주음악창작소 신인 뮤지션 발굴·양성 프로그램인 '뮤지션 인큐베이팅'에서 선정된 안, 예설이 각각 사운드

파크 스테이지에 서고 피크뮤직 스테이지에서는 원보틀, 이진우를 만나볼 수 있다.

2일 피크뮤직스테이지에는 각스, 세이수미, 라이프엔타임의 무대를 즐길 수 있으며 3일에는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빌리카터, 샌치한버스가 이름을 올렸다. 행사장 주변에 푸드코트, 수공예 작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피크닉존 등도 운영한다.

티켓은 1일권 3만 3000원, 2일권 5만 5000원이며 아프로티켓, 인터파크, 네이버, 티켓몬스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피크뮤직 스테이지는 무료 관람 가능. 문의 062-654-3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